

구 분	내 용
국 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위 치	동남아시아
면 적	330,341km2 (한반도의 약 1.5배)
기 후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
인 구	9,458만 명 (2018, IMF)
주요도시	하노이(732만 명), 호찌민(829만 명), 하이퐁(198만 명), 다낭(104만 명), 껀터(125만 명)
민 족	비엣족(86%) 외 53개 소수민족
언 어	베트남어(공용어)
종 교	불교(12%), 천주교(7%) 등
정부 형태	사회주의 공화제 (공산당이 유일 정당)
위치도	

출처 : National Online Project

- 베트남은 아세안 10대 건설산업 시장에서 총 16.7%를 차지하고 있음

〈표〉 아세안 10대 건설산업 시장 보유 국가

번호	국가	아세안 10개국 건설산업 시장 규모
1	인도네시아	31.8%
2	말레이시아	17.1%
3	베트남	16.7%
4	태국	10.3%
5	필리핀	7.1%
6	싱가포르	6.3%
7	미얀마	3.6%
8	캄보디아	3.1%
9	라오니	2.7%
10	브루나이	1.3%
11	합계	100%

출처: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의 특징과 우리 기업 진출 시 고려사항(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2022.09.05

- 베트남 건설수주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음 베트남은 중진국 진입에 노력중이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국가로 베트남이 각광을 받고 있음
 - 현재 많은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에서 반도체 제조업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반도체 수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등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상황
 - 베트남 국회의 「2021 사회경제발전계획」을 발표에 따라서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정부도 제조업에 중점을 두는 만큼 운송, 전력, 에너지 및 물류시설 개발이 예상됨
 - Fitchi Solution에 따르면 베트남 건설시장은 2021년 7.2% 성장과, 2021~2029년 연평균 6.8%의 고도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지연 및 ODA 발주처의 입찰 지연 등에 따라 약 2.8% 성장에 그침
 -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미진했던 건설시장에 고도성장을 위해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의 많은 부채 및 개국도 중 상위에 있는 베트남의 ODA 발주처 지원 규모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베트남은 PPP법(2021.1)을 발표하여 민간 기업에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있음
- (PPP) PPP법은 투자 개발 업체의 매출이 당초 계획보다 75%이하면 베트남에서 손실분 50%를 투자자에게 보전해주며, 반대로 매출이 125%를 초과면 수익분에 50%를 베트남 정부와 나눠 갖는 방식

〈표〉 베트남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단위: 억불,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설시장 규모* (십억동)	156 (358,684)	174 (400,739)	194 (447,510)	215 (495,317)	238 (548,094)	263 (606,381)
건설시장 성장률	9.1	5.7	7.2	6.9	6.8	6.8
건설/GDP 비중	5.9	6.1	5.9	5.9	5.9	5.9

출처: BMI(20.12), 건설시장규모, 2019년 평균환율 적용(US\$1 = VND 23,050.2, 해외건설협회 세계 건설시장 진출전략, 2021)

- (도로) 베트남의 빠른 도시화 및 제조업에 필요한 도로 수요확대로 인하여, 베트남 전역에 걸쳐 도로를 개발 예정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도로망을 지금에 5배인 7,000km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음 관련 주요 프로젝트는 ①남북을 연결하는 신규 고속도로 ②도심 외곽

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 개발 계획

- 대부분 고속도로 사업은 PPP방식으로 진행 예정이고 현재 11건 중 6건은 정부재원, 5건은 PPP방식, 2건은 투자유치 실패 중 또한 베트남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라서 고속도로 진입 및 통행료 징수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철도) 남북을 길게 관통하는 North-South high-speed railway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2013년에 JICA에서 기 완료함 베트남 정부는 2021년 이를 평가할 계획 본 사업은 하노이시에서 HCM까지 총연장 1,560km의 구간을 시속 350km로 운영되는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87억달러에 달할 전망
- 사업은 전체 2단계로 추진 예정으로 남부구간(Ho Chi Minh - Nha Trang, 360km)과 북부구간(Hanoi - Vinh, 280km)으로 나누어져 있음 1단계 사업은 2027-2030년에 추진할 예정이고 2단계사업은 2040년까지 완공 예정임
- 또한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서 지하철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그리고 하노이시는 1호선 개통을 위해 현재 모의 시험주행 중 시공 중인 3호선은 2023년까지 완공 예정임 향후 5호선은 2022년부터 추진될 예정
- 호치민시는 지하철 1호선 사업이 지연에 따라서 2호선 사업도 지연될 예정이지만 곧 발주될 것으로 판단됨
- (항만) 항만의 경우는 실질적은 커다란 성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 향후 10년 성장률은 연평균 2.5% 예상되며 베트남 항구들이 수용능력이 부족하지 않지만 비효율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규 건설보다는 업그레이드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임
- (공항) 베트남 공항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신공항 건설과 확장사업에 약 365조 1,000억동(약 158억달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룡탄국제공항 1단계와 노이바이 공항 확장사업으로 약 5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물류시설) 베트남은 물류비가 다른 국가들 보다 높아서 제품에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물류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40억달러 규모로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물류시설을 개발 중
- (전력) 베트남은 최근의 빠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 2030년 전기 수요는 2,560kWh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발전설비는 대략 131,000MW에 달할 것으로 예상
- 2030년까지 운영이 가능할 LNG 발전소 22곳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2030년까지 연간 80억㎥의 LNG를 수입할 수 있는 부대시설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고, 계속해서 민간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음

〈표〉 우리업체 베트남 수주 추이

단위: 백만불)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27
건 수	1,591	1,029	85	80	82	121	131	63
금 액	44,578	31,115	2,315	1,205	4,404	1,650	2,747	1,142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표〉 우리기업의 베트남 공종별 진출현황

단위: 백만불)

공종/연도		2000	2010	2020	누계 (1965~2020)
토목		65	788	-46	8,863
	단지조성 (도시개발)	-	-	-	-
건축		7	614	728	13,839
산업설비		-	1,829	1,916	19,454
전기		14	1	85	395
통신		-	-	-	6
용역		-	64	61	877
	도시개발	-	-	-	-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베트남 당 중앙경제위원회의 쩌 쩌언 안(Tran Tuan Anh) 위원장은 2022년 5월 19일 정치국의 '2045년 목표 2030년 도시지역 계획 · 건설 · 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결의안 (06-NQ/TW)' 수정안을 발표
 - 2025년까지 도시지역 950~1000개를 확보해 도시화율 45%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1000~1200개 도시지역 및 도시화율 50%를 목표로 2020년말 기준 도시지역은 862개인데 앞으로 매년 100개 가량씩 새롭게 생기는 셈임
 - 2030년까지 도시지역에서 교통용지와 건설용지 비율은 각각 16~26%가 되도록 하며, 1인당 조경수는 8~10개, 1인당 건물 연면적 32㎡에 도달해야 하며 또한 도시지역 경제는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75%, 2030년까지 85%에 이르도록 하고 있음
- 호치민시 건설국 주택 · 부동산 시장 개발실 실장은 앞으로 2030년까지 호치민시 도시의 투덕 시 7군, 12군, 빈탄 군 등 지역에서 콘도, 주택, 공영 주택의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우선 할 방침을 발표함
 - 호치민시에서는 신규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를 담보 할 수있는 유일한 기술 · 사회 인프라의 정비 계획이 전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새로운 콘도 건설 계획을 제한하고있으며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중심부인 1 군, 3군 및 도심 지역인 4군, 5군, 6군, 11군, 푸누언(Phú Nhuận) 군으로 되어있음
 - 타 8군, 빈타인 군, 탄빈 군, 고밥 군, 탄후 군에 대해서도 호치민시는 기술 · 사회 인프라의 정비를 진행, 인프라 계획에 맞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유치 해 나갈 예정
 - 교외에 속하는 Bình Chánh, 흑몬, 나베, 구찌, 칸조 등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리조트 개발, 신도시 개발, 위성 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형태의 주택 개발을 권장하고 있음

- 베트남 인구는 전체적으로 젊은 편이고 도시 내 노동 인구보다 농촌 내 노동 인구가 2배 이상이나 도이머이 정책 이후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인하여 최근 많은 인구들이 도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베트남의 대규모 도시인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베트남 주요 대도시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도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2040년까지 도시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비율에 절반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화 및 산업고도화에 따른 인구증가, 교통체증, 환경오염, 교육, 의료시설 등에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신속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임

〈표〉 베트남 주요 도시별 스마트시티 현황

구 분		내 용
하노이시	도시면적	약 1,284km ²
	인구	805만 명(2019 기준)
	개발분야	헬스케어, 교육, 교통, 여행 등
	관련정책	N/A
	기타	일본 경제산업성(METI), 스미토모 종합상사(Sumitomo), 미쓰비시 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과 스마트시티 공동개발 파트너십 체결, 2023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함
호치민시	도시면적	약 2,095km ²
	인구	899만 명(2019 기준)
	개발분야	교통, 의료, 환경, 홍수 예방, 공공안전, 전자정부 등
	관련정책	「2025년 전망, 2017~2020년 호치민시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 호치민 인민위원회, Decision No.6179-QD/UBND(2017.11.23.)
	기타	일본 경제산업성(METI), 스미토모 종합상사(Sumitomo), 미쓰비시 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와 스마트시티 공동개발 파트너십 체결, 2023년까지 개발을 목표
다낭시	도시면적	약 1,284km ²
	인구	113만 명(2019 기준)
	개발분야	IOC(Intelligent Operation Center), 공공서비스, 오픈 데이터, 여행, 수도관리, 폐기물 처리 관리, 교육, 헬스케어, 보안 및 응급 서비스, 재난예방, 교통 등
	관련정책	「2030년 전망, 2018~2025년 다낭시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 다낭 인민위원회, Decision No.6439/QD-UBND(2018.12.29.)
	기타	2020년 베트남 스마트시티 위어즈 ‘스마트시티상’ 수상 FPT Group과 함께 ‘2020 스마트시티, 2025 그린시티 달성’ 계획 발표(2018.1.11.)
컨터시	도시면적	약 1,439km ²
	인구	123만 명(2019 기준)
	개발분야	전자정부, 도시계획, 교통, 환경관리, 농업, 여행, 의료, 교육, 보안 등
	관련정책	2016~2025년 컨터시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 * 컨터 인민위원회 Decision No.10-NQ/TU(2017.4.11.)

자료: 베트남 과학기술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마트시티해외진출전략보고서, 2021

- 베트남 정부는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해 건설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아래와 같이 협력하고 있음

〈표〉 베트남 정부 부처별 역할

구 분	역 할
건설부(MOC)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주무기관(Standing body)로 관련 부처와 부서의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총리에 보고
정보통신부(MIC)	ICT산업 인프라 시스템 조성, 관련 기술·규정 확립, 응용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과학기술부(MOST)	국가표준화 작업 수행, 관련 부처, 기관·기업(민간 포함) 소통 수행
산업무역부(MOIT)	스마트시티 건설·운영, 유지보수, 장비교체 등 필요 자원 유통 및 공급
자원환경부(MONRE)	자원관리 및 환경보호 분야 총괄
기획투자부(MPI)	각종 민간 투자 및 해외 ODA 유치 독려, 투자정책 수립
재무부(MOF)	각 부처별 예산 배분 및 조정

자료: Decision No. 950/QĐ-TTg(' 18.8.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마트시티해외진출전략보고서, 2021

- 2018년 한-베 정상회담 중 양국 간 도시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을 위하여 한-베 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술이전 및 정책지원을 체결하고 양국간 활발히 교류 중이어서 주목이 필요함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운영 사업

<p>□ 사업명(영) : Establishment of Korea-Vietnam Smart City Cooperation Center</p> <p>□ 사업 기간 : 2020. 6. ~ 2024. 6</p> <p>□ 사업 유형 : 프로젝트형 ODA</p> <p>□ 사 업 비 : 80억원</p> <p>□ 수행 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p> <p>□ 사업 목적</p> <p>① 스마트시티 관련 법·제도 기반구축, 양국간 기술협력 및 기술 이전, 진출</p> <p>② 베트남 KPI도시데이터 플랫폼구축·운영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구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국내 도시정부, 기업·산업 동반 진출 기반 구축</p> <p>③ 한-베 협력센터 설립·공동운영을 통한 베트남 스마트시티 정책·사업 컨트롤타워 수행,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 건설·IT 산업 진출 핵심거점 마련</p> <p>□ 과업 범위</p> <p>o (1차년도) 베트남 스마트시티 계획·법·제도, 인프라 현황 분석 및 도시정부 스마트시티 타당성, 핵심전략 분석 등</p> <p>o (2차년도) 베트남 정부 스마트시티 법규 실행 가이드라인 개발, 운영기술·정책 개발, VKC협력센터 설립 설계</p> <p>o (3차년도) 스마트시티 법·제도, 계획설계 가이드라인의 평가 및 검증,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및 시범사업 운영, VKC협력센터 시공</p> <p>o (4차년도) 한-베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완공 및 개소, 센터 시험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양국 스타트업·기업 유치전략수립, 테크페어·기술로드쇼포럼 등 개최</p>
--

- 베트남의 인프라·건설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각각 4.2%, 5.7%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의 4차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중점 개발 분야 중에서도 스마트시티 건설에 관한 의지가 돋보이는 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사업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LH, 2021)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y Network)에서는 베트남의 다낭, 하노이, 호치민 3개 도시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2018~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글로벌ICT포털, 2020)
- 뿐만 아니라 켄터(Can Tho)시의 스마트시티 건설계획, 끼엔장(Kien Giang)성의 2020 푸꾸옥(Phu Quoc) 스마트시티 계획, 빈중(Binh Duong)성의 Bin Duong Navigator 2021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시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표〉 베트남 스마트시티 목표와 재원조달 방법

구분	주요 내용
목표	녹색성장, 지속가능개발, 자원활용 효율성 향상, 인적자원 효율화, 삶의 질 향상, 스마트시티 개발연구, 투자관리, 국가관리 효율성 향상 및 도시 서비스 개선, 국제통합 및 경제의 경쟁력 강화
재원조달 방법	국제 및 국내 자금, 민간기업 자금, ODA 자금 국가 예산 및 기타 합법적인 자금 활용

〈표〉 베트남 스마트시티 주요 Milestone

구분	주요 전략 및 계획
2020년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법률 기반 구축 도시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및 표준 수립 최소 3개 도시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개발 지원 유관부처 인력의 50%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시행 메콩델타 지역에 프로젝트 우선 개발
2025년	법률기반 완성 최소 6개 도시 또는 경제구역에 프로젝트 개발 지원 유관부처 인력의 100%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시행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표준 발표

〈표〉 우리나라의 기업이 베트남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 사례

구분	주요 내용
메콩 델타 지역 스마트시티 사전 타당성 조사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서 실시하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에서 12개 사업 중 도시개발형 사업의 하나로 메콩 델타 지역에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pre-FS) 수립에 관한 지원 예정 사업 성공 시 추후 메콩 강 인근 국가, 도시로의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컨더(Can Tho)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컨더시는 메콩강 델타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2025년까지 메콩강 일대에서 최초의 스마트시티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17년 7월, 롯데그룹은 호치민시와 약 2조 원 규모의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롯데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약 1.5배 규모인 68만㎡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60층 규모의 쇼핑몰 등 상업 시설과 함께 사무실, 호텔, 서비스 레지던스와 아파트 총 10개동으로 구성된 대형 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으로 총 사업비만 약 1조2000억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로 모든 건물이 완공되는 시기는 2028년으로 예정임 이후 201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토지법, 입찰법 등의 위반사항이 지적돼 프로젝트가 무기한 중단되었으나 지난해 말 재개되었음 쇼핑시설과 주거단지에 지하철이 예정돼 있을만큼 교통에 최적화돼있고, 센트럴광장 등 공원이 근접해 여가와 휴식을 보내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며 인공지능(AI) 홈케어, 정수 및 공기 정화시스템, 스마트 주차시스템 등 최신 정보기술도 베트남 주거지역에 최초로 적용할 계획
홍이엔성 스마트 산업단지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베트남 홍이엔성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함 사업비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7개의 산업단지와 2개의 도시클러스터, 하이테크 클러스터, 물류·무역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림] 리홍이엔성 스마트시티 조감도



출처: 롯데자산개발
[그림] 투티엠 지역 에코-스마트시티 조감도

〈표〉 우리나라의 기업이 베트남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 사례

구분	주요 내용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 협력센터 사업	<p>베트남 스마트시티 인프라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첨단 건설 기술 등을 전수</p> <p>VKC 출범과 관련해 MOA 체결 기관은 총 4개</p> <p>소이바알엔디'는 글로벌 탄소 저감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p> <p>기후 변화 연구소 'CERED 베트남'은 ESG(환경,사회,투명경영) 데이터를 총괄해 베트남 서비스를 추진</p> <p>'IDI주식회사'는 에너지 및 식품 인증기관으로서 베트남과 협력 계획</p> <p>베트남 해양 양식자 협회인 'VSA'는 300만명의 수산생산자 회원을 둔 곳으로, 해양 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협약 기관들과 마련</p>
하남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 사업	<p>현대건설은 비텍스코사와 하남성이 개발 추진 중인 하남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 사업(Ha Nam Eco-Smart Urban Living Tomorrow City)에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공동개발 협력계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p> <p>하남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 사업은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하남성 신도시 내 스마트시티 선도 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는 사업</p> <p>현대건설은 해당 지역 스마트시티 조성에 참여해 R&D센터, 오피스, 상업시설, 스마트 물류센터 등으로 구성된 '하이테크 산업지구(Hi-Tech Zone, 약 663ha)'와 주거 및 서비스 인프라 시설이 들어서는 '도심지구(Urban Zone, 약 861ha)' 등 총 면적 1,524ha에 이르는 대규모 복합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p> <p>비텍스코사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성과를 일궈내는 동시에, 비텍스코사가 추진하는 신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베트남 민간 건축 사업 부문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p>

〈표〉 우리나라의 기업이 베트남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 사례

구분	주요 내용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내에 스마트전력미터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구축 시범사업	<p>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일부 블럭에 AMI가 적용된 시범 인프라를 도입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력공급을 통한 혜택을 지원을 약속하는 MOA 체결</p> <p>AMI 구축사업은 베트남 총리실 지시로 베트남전력공사가 2025년까지 전국 2개 지역(하노이 1곳, 호치민 1곳)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으로 현재 베스핀글로벌과 대우건설 베트남 법인이 협력해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THT-BESPIN SMART CITY HUB)과 연계됨으로써 향후 베트남 스마트시티의 전력 관련 핵심 기술 표준 중 하나로 자리잡을 전망</p> <p>AMI가 구축되면 전력사용량 모니터링과 함께 시, 일, 월에 따른 전력사용 동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와 기존 수집데이터, 기상 예보 등을 토대로 거주자와 건물 및 도시 전체의 전력 사용량 예측도 가능해지며 전력 최적화 사용법도 자동으로 지원되게 됨</p> <p>한국의 민간기업이 데이터수집과 통합, 분석을 위한 핵심 플랫폼을 지원하며 베트남 국영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 차원의 협업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도 가능한 것은 물론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표준화 모델 수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p>
제일전기공업, 베트남 베카맥스와 AI스마트케어시스템 공급	<p>제일전기공업은 베트남 빈즈엉성 내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서 AI스마트케어시스템을 설치 실증하고, 베카맥스는 베트남 내 독점 대리점 역할을 수행</p> <p>제일전기공업이 공급하는 AI스마트케어시스템은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다중 센싱 및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케어 플랫폼을 적용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위험상황을 감지해 적절한 대응을 돕는 시스템</p>
꽝남성 땀끼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사업	<p>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양대 선정</p> <p>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프로그램, 2030년까지의 2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중부지역에 스마트시티 밸리를 구축</p> <p>꽝남성, 땀끼시 스마트시티 관리체계 구축과 스마트시티 운영·관리 역량 향상,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를 통해 도시의 안전·편의성 높여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조기 정착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p>